



Received: 2019/12/08
Revised: 2020/01/10
Accepted: 2020/02/12
Published: 2020/03/25

***Corresponding Author:**

Kwang-Soob Ko

Division of Naval Officer Science,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Mokpo, Republic of Korea

Tel: +82-61-240-7154

Fax: +82-61-240-7127

E-mail: nama1@mmu.ac.kr

이순신 장군의 안좌도 수군기지에 대한 해양전략적 분석

The Maritime Strategic Analysis on Admiral Yi Soon Shin's Navy Base Anjwa-Island

고광섭^{1*}, 박태용¹, 김득봉²

¹목포해양대학교 해군사관학부 교수

²목포해양대학교 항해정보시스템학부 교수

Kwang-Soob Ko^{1*}, Tae-Yong Pak¹, Deug-Bong Kim²

¹Professor, Division of Naval Officer Science,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²Professor, Division of Navigation and Information Systems,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Abstract

본 연구는 안좌도가 정유재란 당시 명량해전 이후의 전시상황을 고려한 조선수군 기지로서 적합했는지를 판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해양전략적 분석을 위한 첫 단계로서 안좌도(기좌도)와 매봉산 주변의 지형정보를 19세기부터 현재까지의 지리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이를 통해 안좌도(기좌도) 지형 변화와 갯골항로의 현재와 과거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였다. 정유재란 당시의 안좌도(기좌도)와 매봉산 주변의 지형정보를 분석한 결과 안좌도(기좌도) 일원과 매봉산 주변은 조선수군의 해상작전기지로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인 지리적 위치, 자연적 위치, 교통로 확보 등을 충족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Anjwa-do was suitable as a Joseon Dynasty naval base in consideration of the wartime situation after the Myongyang naval battle. As the first step for ocean strategic analysis, the topographical information around Anjwa-do(Gijwa-do) and Mt. Maebong were analyzed using geographic information from the 19th century to the present. In particular, we examined the changes in the topographical maps of the seat and the current and past changes of the tidal channel.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opographical information around Anjwa-do(Gijwa-do) and Mt. Maebong, the members of Anjwa-do(Gijwa-do) and Mt. Maebong met the basic requirements, which are the maritime operations sites of Joseon Dynasty Navy, securing geographic location, natural location, and transportation route.

Keywords

Anjwa-Island(안좌도),
Maritime Strategic Analysis(해양 전략적 분석),
Naval Base(해상기지)

1. 서론

최근 전남 신안군 안좌도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정유재란 시기이던 1597년 음력 10월 11일부터 18일간을 체류했던 섬으로 밝혀짐에 따라 관련 학계와 문화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섬은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승리 후 왜군의 추적을 피해 한반도 서남해를 향해하면서 정박을 했거나 체류했던 장소 중 유일하게 어느 곳인지 밝혀지지 않았던 장소였다. 그 이유는 이순신 장군이 당시 상륙했던 섬의 이름을 일기에 안편도라고 기록은 하였으나, 안편도라는 지명을 갖는 섬은 현재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랜 기간 이은상을 비롯한 난중일기 번역자 및 연구자들은 안편도라는 섬의 현재 위치를 신안군 팔금도 또는 장산도로 추정해 왔으나[2-6], 두 섬 어느 곳도 이순신 장군이 그의 일기에 기록한 지리적 위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내 항법학자들에 의한 연구의 결과로 안편도가 현재의 안좌도(기좌도와 안창도라는 섬이 하나로 합쳐진 섬)라는 사실이 최초로 규명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들은 과거 안편도로 추정되었던 팔금도와 장산도가 이순신이 기록한 난중일기의 지리적 위치와는 맞지 않음을 밝혔고, 팔금도와 장산도 사이에 있는 안좌도(기좌도)가 이순신의 기록과 가장 일치함을 확인하여 논문으로 세상에 알렸다[7,8,10].

이순신 장군의 일기 기록을 근거로 지리적 및 항해과학적인 분석과 현지

답사를 통한 검증은 통해 이순신 장군이 올랐던 산이 전남 신안군 안좌도(기좌도)에 있는 매봉산임을 밝혔지만, 과연 안좌도가 당시 전시 중에 있는 이순신 장군과 조선수군의 입장에서 볼 때 해상작전기지로서 적합한지의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좌도가 정유재란 당시 명량해전 이후의 전시상황을 고려한 조선수군기지로서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 안좌도(기좌도)와 매봉산 주변의 지형정보 분석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이후 한반도 서남해역을 40여 일 이상 해상 또는 섬에서 항해와 체류를 한 이유는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조선수군의 전력의 왜 수군보다도 턱없이 부족하여 왜 수군의 추격을 피하면서 조선수군을 재건해야 하는 상황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이순신 장군은 과거와는 다르게 공세적 전략 대신 수세적 전략을 구사하면서 적절한 작전기지를 찾아 미래 해전에 대비한 전략 강화를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순신 장군이 상륙한 섬으로 밝혀진 안좌도(기좌도)의 제반 여건이 수군의 작전기지로서 적합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형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안좌도(기좌도) 실제 규명 요지

노산 이은상이 난중일기를 번역한 이래 여러 역자들의 난중일기 번역서가 간행되고, 임진왜란 및 이순신에 대한 연구나 용역사업이 추진되었으나 1597년 10월 11일 이순신이 기록한 일기의 내용 중 조선수군의 전시 작전기지로서의 안좌도라는 섬에 대한 실제 규명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



Fig. 1. Anjwa Island separated from Gijwa Island (left) and Anchang Island (right)

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안좌도가 현재의 안좌도임이 규명된 연구 결과의 핵심 요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8]. 기존의 안좌도로 추정해 온 팔금도와 장산도는 난중일기의 북쪽과 서쪽 경관이 일부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동쪽 시야를 가리는 섬’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의 안좌도는 과거 안창도와 기좌도로 분리된 섬이었고, 안좌도에서 난중일기에 기록한 내용과 가장 일치한 산은 기좌도(현 안좌도의 일부)의 매봉산으로 확인되었고, 난중일기 기록에 동쪽시야를 가리는 섬은 과거 안창도(현 안좌도의 일부)로 확인되었다.

Fig. 1은 현재의 안좌도 지형도에 과거의 지도를 근거로 바닷물이 들어와 두 개의 섬으로 분리된 지형을 묘사한 것인데, 왼쪽의 기좌도와 오른쪽의 안창도로 분리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1597년 10월 11일 상륙했던 섬으로 밝혀진 Fig. 1의 기좌도의 해발 약 129 m 매봉산 정상에서 보면 동쪽에 안창도의 해발 150 m가 넘는 큰산과 후동산에 막혀 가까이 있는 바다를 볼 수가 없어 이순신 장군이 일기에 기록한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Fig. 2는 한 개의 섬으로 합쳐진 현재의 안좌도 실제 위성 지형도를 나타낸다.

2.2 지형정보로 분석한 안좌도(기좌도)와 매봉산 주변 지형 특징

안좌도의 지리적 환경과 지형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16세기~19세기 고지도, 1918년~2019년 지도(위성지도 포함), 지형도와 1950년도부터 1990년까지 주요 항공사진을 참조하였다[11-19]. 현재의 안좌도는 기좌도와 안창도를 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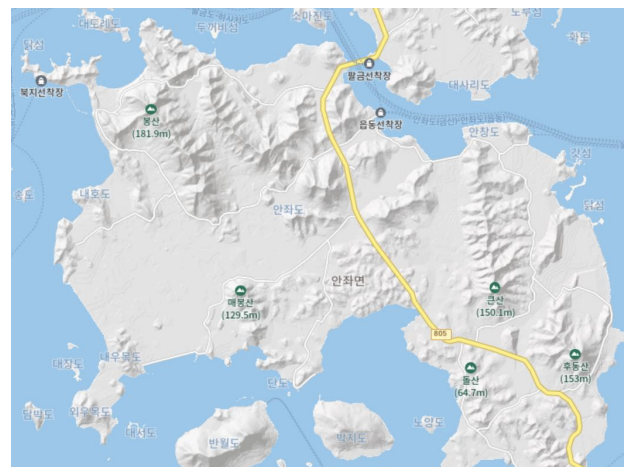


Fig. 2. Anjwa Island current status

는 방조제가 완성된 후 한 개의 섬으로 되었다. 매봉산은 해발 129미터 높이로 기좌도 서남쪽에 있다. 매봉산 남쪽에는 반월도와 박지도 등의 섬, 북쪽에는 방월리에 있는 180여미터의 봉산, 대우리, 신촌리 등의 야산, 북동쪽으로는 창마리 야산, 동쪽으로는 대척리, 남강리 야산 및 해발 150여미터의 안창도가 있다. 또 현재의 매봉산 아래부터 들관 건너 야산 아래까지 바닷물이 드나들었음을 과거 연도별 항공사진과 지도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지형분석 결과 과거에는 매봉산 아래부터 동-북-서쪽으로 펼쳐진 농지까지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75년까지도 일부 농지화된 곳을 제외한 내륙까지 바닷물이 자유롭게 드나들었으나 1980년대 매봉산 북쪽부터 대우리를 잇는 방조제가 들어섬으로써 1990년 이후 바닷물의 출입은 일부 수로를 제외하고 차단되었다.

2.3 안좌도(기좌도) 지형 변화와 갯골항로의 현재와 과거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매봉산 주변의 지형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현재 농토로 변한 과거의 바다는 연도별로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했다. 연도별 주요 항공사진과 지도를 통해 분석한 결과 1950년도까지 기좌도는 특별한 변화 없이 거의 원시상태의 지형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1960년대부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방조제 구축은 1970년대 중반까지 매봉산 북쪽으로는 매봉산아래-대우리, 서남쪽으로는 작은 섬인 외우목도-내우목도-내호도-방월리로 이어진다. 남쪽으로는 구대리 남쪽-소곡리로 이어진다. 비교적 수심이 낮은 바닷물을 막아 농지와 염전으로 활용을 했음에도 눈여겨 볼만한 것은 매봉산 남쪽 박지도로부터 기좌도 내부로 이어지는 항로는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1986년까지도 선박의 항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내부 수로는 자연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1990년도 들어오면서 바닷물은 완전히 차단된다.

Fig. 3은 과거의 바다가 매립이 되어 육지로 변한 현재의 매봉산 주변의 위성지형도이다. Fig. 4는 1990년도까지 매봉산 주변의 매립상태와 매립된 육지에 수로가 남아있는 모습이다. Fig. 5는 1970년대까지 매봉산 주변의 매립상태를 나타냈는데 매봉산 아래까지 바닷물이 자유롭게 드나들었음을 알 수 있다. Fig. 6은 일제 강점기의 매봉산 주변의



Fig. 3. Real topographic maps around Mt. Maebong in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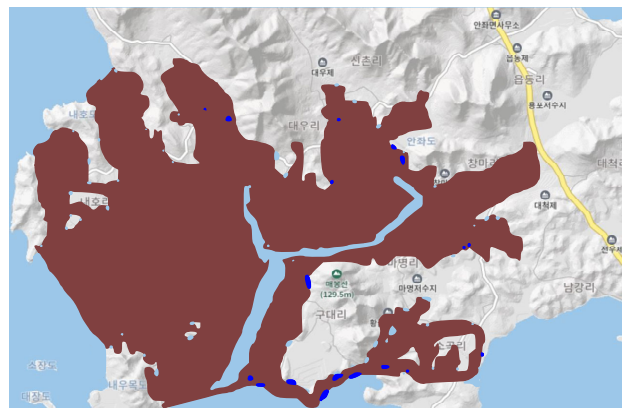


Fig. 4. Topographic Map around Mt. Maebong since 1990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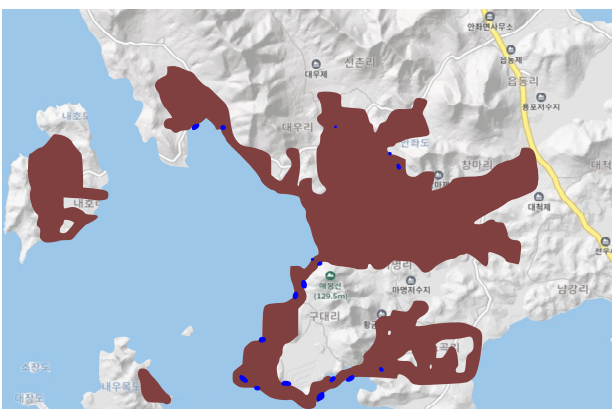


Fig. 5. Topographic Map around Mt. Maebong in the 1970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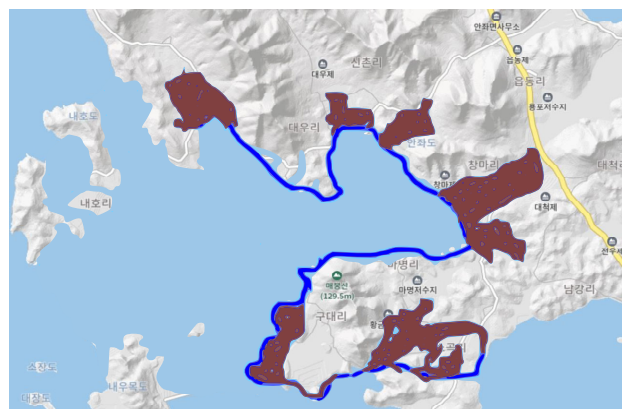


Fig. 6. Topographic Map around Mt. Maebong in 1918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도 작지만 매립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바닷물은 내륙 깊숙한 곳까지 자유롭게 드나들었음을 알 수 있다.

Fig. 7은 매립 지역이 없다는 가정아래 1597년 당시의 매봉산 주변의 형태에 대한 지형도 묘사이다. Fig. 8과 Fig. 9는 1986년 이후 방조제로 인해 해수 출입이 차단된 이후 갯골 수로가 담수로로 변한 현재 모습에 대한 사진이다.



Fig. 7. Topographic Map around Mt. Maebong in 1597



Fig. 8. The image of the waterway taken from the west of Mt. Maebong



Fig. 9. The image of the waterway taken from the north-west of Mt. Maebong

2.4 갯골항로의 특징 분석

갯골항로는 수심이 낮은 서해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갯벌 속 항로이다. 이는 저조시 바닷물이 빠지면 수심이 낮은 곳은 넓은 갯벌을 드러내 보이는데 이때 수심이 깊은 곳은 골을 형성하여 여전히 해수가 차 있어 선박 출입항이 가능하다. 매봉산 남서쪽의 바닷물 출입로는 실제로 고조시 1 km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저조시에는 갯골의 수로로만 바닷물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항공사진과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90년 이전까지 매봉산 남쪽구대리 쪽 바다 입구의 바닷물 출입 폭은 대략 150 m, 매봉산 서쪽 100, 매봉산 북동쪽 50 m 정도다.

3. 현장 답사 결과와 주민 방문 면담 결과

3.1 현장 답사

항공사진과 지도정보를 활용한 과거와 현재의 안좌도 지형변화 및 갯골항로 분석을 병행하여 현장 답사를 실시하였다. 매봉산을 중심으로 사방에서의 목측과 사진정보를 얻기 위하여 5회의 현장 답사를 실시하였다. 갯골을 따라 바닷물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입구 쪽을 완전히 차단할 때까지 매봉산 서남쪽으로부터 매봉산 서쪽-북쪽-동북쪽까지 바닷물이 드나들었음은 연도별 지도와 항공사진을 분석함으로써 확인이 가능했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갯골은 어떻게 변했을까. 바다 입구 쪽 수로의 폭은 대략 100 미터 내외, 매봉산 서쪽은 50~90여 미터로 방조제 사업 전보다는 다소 폭이 좁아졌지만 비교적 과거의 갯골 형태를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음을 현지답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수심의 경우 갯골 수로 바깥쪽은 1미터 내외, 갯골 안쪽은 2~3미터 이상으로 파악되었다. 현재는 갯골 수로가 넘치지 않도록 여유를 두면서 담수 수량을 조절하는 것을 감안하면, 과거 바닷물이 드나들었을 경우는 현재의 수심보다도 더 깊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는 일명 깔(갈)치기 수로라고 바다 입구를 막아 담수로 채워져 항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농지 경작을 위한 농수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3.2 주민들의 증언

매봉산 주변과 안좌도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지형정보를 통해 과거에 선박이 현재의 안좌도 깊숙한 곳까지 운항되었을 것으로 추정은 되었으나, 갯골이 선박의 항로 역할을

을 하고 선박이 매봉산 바로 근처까지 왕래 했는지의 사실 여부는 목격담이나 경험자의 사실적 증언이 중요하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마명리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였다. 조상 대대로 마명리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후손들을 중심으로 복수의 주민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마을 이장인 양○○씨는 과거 매봉산 북동쪽 현재 안좌면 양수장 부근까지 여객선과 화물선이 왕래했음을 확인해 주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화물선은 1960년대까지도 매봉산 아래 현재 양수장 위치에 있었던 선착장까지 여객선이 드나들며 인근의 섬들을 경유하여 목포까지 운항되었다고 한다. 또 바닷물을 완전히 차단했던 방조제가 들어서기 전이던 1980년대도 화물선이 선착장까지 드나들며, 이 고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소금 등을 목포까지 수송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1986년 항공사진에도 매봉산 서남쪽과 북쪽에 선착장과 정박해 있는 선박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안좌도와 매봉산 일원에 대한 해양전략적 분석

4.1 알프레드 마한의 해양전략 이론과 안좌도 상륙시점의 조선수군 상황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의 저자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은 제해권 확보를 통한 강한 해양력이 전쟁의 승리 및 국가의 번영을 보장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해양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으로 국가의 지리적 위치, 자연적 위치, 영토의 크기, 인구의 수, 국민성을 인위적인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또 그의 저서 ‘해양전략의 기초와 원칙’에서 전략적 거점을 선택할 전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점을 선택해야 하고,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 확고하게 점령할 수 있는 교통로들과 연계되어 있는 위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한의 해양전략적 이론이나 주장을 1597년 10월 11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해상 거점의 해상기지로 선택한 전략적 사고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당시의 이순신 장군이 처해 있는 상황은 제해권 확보를 위해 강한 해양력을 통한 전쟁의 승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조선수군과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 승리에 불구하고 왜 수군을 피해 작전상 후퇴를 하면서 철저한 수세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한의 이론이나 주장을 수군기지 선택적으로 제한하여 적용하고자 한다[9,20]. 즉 선택한 안좌도와 매봉산 일원의 작전기지를 지리적 위치, 자연적 위치, 교통선 연계 중요성 등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다.

(1) 상륙한 섬이 전선을 숨기기에 적합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이순신 장군은 섬 상륙 직후 산에 올라가 그의 참모들과 함께 섬 안에 수군의 전선을 숨기기에 적합한지 섬 주변의 지형을 살폈다. 당시 조선수군의 수세적인 전략적 상황에서 이순신은 조선수군의 수군기지로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전선을 은폐할 수 있는 장소로 보았다. 첨단 군사정보 과학이 발달한 현재에도 보안이 필요한 모든 군사시설은 가능한 물리적으로 외부 노출을 시키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현재에도 군함의 색깔을 회색으로 하여 멀리서도 식별을 어렵게 한다거나 해군 기지나 부두를 설계할 때도 이 점을 감안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좌도(기좌도)매봉산 인근의 갯벌 향로나 주변은 섬이나 야산으로 둘러싸여 외해에서 관측이 어렵다. 이는 전략적 거점의 측면으로 보면 천혜의 요새지 역할을 할 수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이 상륙 직후 산에 올라 전선을 숨기기 위한 적합한 장소라고 기록한 대목과도 일치한다.

(2) 전선 정박지는 크기와 규모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자연적 환경을 충족하는가?

우선적으로 전선을 정박해 둔 장소가 조선수군의 주력 전선인 판옥선의 선박치수에 적합한 흘수와 당시의 조선수군 전선의 척수를 정박할 만한 공간이 충족되어야 한다. 1990년 방조제로 완전히 바다와 내륙 항로를 막기 전인 1986년까지도 항공사진과 지도의 축척을 고려한 항로는 저조인 경우 150~50 m 폭으로 매봉산 남단에서 매봉산 북동쪽까지 상시 항로가 유지되었음을 확인 한바, 16세기 원시상태의 안좌도(기좌도)의 매봉산 주변은 물론 현재의 광활한 농지까지 바닷물이 가득 찼음을 감안할 때 당시 조선수군의 판옥선 외 협선 등은 물론 피난민 선박까지도 충분히 정박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은 1597년 당시 기좌도와 매봉산의 지리적 위치, 해수의 출입, 매봉산 주변의 수심, 조선수군 전선의 크기나 규모 등을 고려한 조선수군 전선의 정박지 추정위치다.

(3) 섬 안의 정박지부터 외해까지 자유로운 해상교통로가 확보되는가?

비상시 긴급 전투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상시 전선의 항해할 수 있는 항로가 있어야 한다. 한반도 서남해역의 경우 조석시간에 따라 섬 주변은 갯벌이 드러나 항해할 수 없는

지역이 많다. 특히 섬 안 내륙 깊숙한 곳은 더욱 수심이 낮아 고조시에도 항해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조선 수군의 주력선인 판옥선의 흘수와 선평을 고려한 항로가 상시 유지 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하려면 수로의 폭과 수심이 운항하는 선박의 치수를 충족해야 한다. 입출항에 필요한 대표적 선박 치수는 흘수와 선평이다. 조선수군 주력 전선인 판옥선은 만재배수톤수 약 64 톤, 흘수 약 1 m, 선평 약 8 m, 전장 약 52 m임을 고려하고[9,21], 1980년도까지도 화물선이 운항되었음을 감안하면 조선수군의 전선이 매봉산 주변을 항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자유로운 해상교통로가 확보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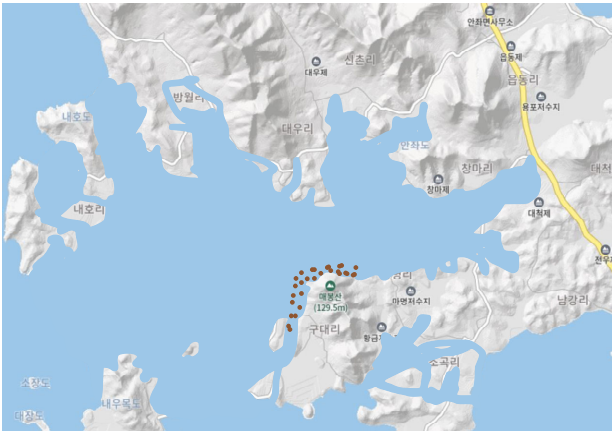


Fig. 10. Estimated location of major berths in Joseon Dynasty Navy in 1597

5. 종합검토 및 결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 이후 조선수군을 이끌고 한반도 서남해를 항해하면서 해상작전기지 물색을 하다 1597년 음력 10월 11일 안편도라는 섬에 상륙하였다. 이순신 장군은 이 섬에서 그 해 10월 29일 목포의 고하도로 해상작전기지를 이동하기 전까지 체류하였다. 안편도라는 섬 이름이 우리나라 어느 기록에도 없어 오랜 기간 이 섬은 실체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잊혀왔다. 최근 저자를 비롯한 이순신 해로탐사단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안편도라는 섬이 전남 신안군 안좌도로 실체 규명이 이루어진 바 있다. 본 논문은 새롭게 실체 규명이 이루어진 이순신 장군의 해상기지 안좌도에 대한 해양전략적 분석에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안좌도의 지리적 환경과 지형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고지도, 1918년~2019년 지도 및 지형도와 1950년도부터 1990년까지 주요 항공사진을 참고하여 안좌도(기좌도)와 매봉산 주변의 과거와 현재의 지형정보를 분석하였다.

둘째, 안좌도(기좌도)와 매봉산 주변의 과거와 현재의 지형정보 분석 및 현지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바닷물 출입이 자유로운 1980년대까지 매봉산 주변까지 선박이 자유롭게 항해하였음을 확인했다.

셋째, 미국의 해양전략가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의 해양전략이론을 1597년 조선수군이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적용하였다. 안좌도(기좌도)와 매봉산 일원이 지리적 위치, 자연적 위치 및 교통로 확보 측면에서 조선수군의 해상기지에 얼마나 적합한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안좌도(기좌도)와 매봉산 일원은 조선수군의 전선 은폐와 정박은 물론 자유로운 항해를 할 수 있는 천혜의 요새지로서 부족함이 없었다.

참고문헌

- [1] Yi, S. S. (1597), Jeongyu Diary (The War Diary), 11th Oct. 1597.
- [2] Jo. S. D. (1986), Chungmugong Yi Sun-shin, Namyoungmunhwasa, p.128.
- [3] Choi, Y. S. (2007), A Holy Place of the Nation 'Goha-do', Doseochulpan-Hoon, p. 352.
- [4] Kim J. O. (2004), Chungmugong Yi Sun-shin's Baleum-do of Nanjung Diary is Jangsan-do, Shinanmunhwa No.14.
- [5] No, S. S. (2014), the Translated Nanjung Diary of Yi, S. S., Book Publishing Yeohae.
- [6] No. G. W. (2017), Inroad the Namdo sea of Yi sun-shin and Shinan Palgeum-do Sea Base, Academic Seminar on the Reconsideration of the Admiral Yi sun-shin, pp.76-78.
- [7] Ko, K. S. and Kim, D. B. (2018), A study on the estimated island to be Anpyeon-do of Nanjung Diary(The war dairy),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p. 207.
- [8] Ko, K. S., Park, T., & Kim, D. B. (2018), A Critical Review of the Geographical Location of Anpyeon-do(Baleum-do) Written in the Nanjung Diary by Admiral Yi, Korea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 [9] Kim, I. S. (1991), The Imjin War & The Admiral Yi's Strategy, the Research Papers on Admiral Yi, the Museum of R.O.K Naval Academy.
- [10] Ko, K. S. and Kim, D. B. (2019), The Study on Admiral Yi' Navigational Route for saving Country & 12 Naval Base on Sea, 2019 Seminar in Mo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Nov. 8. 2019.
- [11] 16-19th Century Maps Published Joseon Dynasty.

- [12] 1918 Map Published in Japanese Colonial Era.
- [13] 1954 Aerial Photograph Published by ROK Government.
- [14] 1972 Map Published by ROK Government.
- [15] 1975 Map Published by ROK Government
- [16] 1975 Aerial Photography Published by ROK Government.
- [17] 1986 Aerial Photography Published by ROK Government.
- [18] 1990 Aerial Photography Published by ROK Government.
- [19] 2019 Satellite Map Supported by Naver.
- [20] Kim, J. S. (2006), The translated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written by Alfred Thayer Mahan, the world of Book, pp. 77-160.
- [21] Min, G. S., Lee, W. S., Lee, K. B. (2017), The Imjin War & Tuttle Ship, Happy Energy.